

제11편 - 소사신앙촌 시대 <제2부>

전도관 역사는 구세주를 출현시킨 역사였다 (44회)

- 제11편
- 소사신앙촌시대 <제2부>
- 1. 소사라고 하는 지역
- 1) 무너진 하늘나라를 회복하기 위해 예비해 놓은 곳
- 2) 천봉지락소사탑(天崩地坼素砂立)의 본고장
- 3) '환돌'이요 '계룡백석'이다
- 4) 무릉도원종도처(武陵桃源種桃處)
- 5) 시종간야소사지(始終艱野素砂地)

라. 가사총론(歌辭總論)

鶴龍白石平沙福處
 계룡백석평사복처
 武陵桃源此勝地가
 무릉도원차승지
 一片福州安淨潔處
 일편복주안정결처
 誰是不知種桃人고
 수시부지종도인

“계룡백석은 소사를 말함인데 부평과 소사땅이 복된 곳이다. 이곳이 무릉도원인데 이곳이 십승지이다. 한편 이곳은 복된 고을이요 평안하고 정결한 곳인데 누가 이곳을 종도인 즉 영적 무릉도원의 씨앗을 심는 사람이 있는 곳이라는 것을 알겠는가” - 백석 소사가 무릉도원이라고 하였다.

이외에도 소사가 무릉도원이라고 기록된 곳이 격암유록 속에는 많이 있다. 그러나 그것을 다 찾아 기록을 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이 정도만 가지고도 소사땅이 얼마나 귀중한 역할을 할 곳인지는 충분히 알 수가 있기 때문이다. 소사는 무너진 하늘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곳이고 사람들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이상향인 무릉도원이라는

곳이다. 이곳에서 하늘의 역사는 시작도 끝맺음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곳이 천계룡(天鷄龍)인 곳이고, 또 이곳에서 무너진 하늘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곳인데 바로 이곳에서 완성의 역사를 하시는 분이 아니면 다 주인공이 아니다.

5) 始終艱野素砂地(시종간야소사지)

지금까지 소사라고 하는 곳이 얼마나 중요한 곳인가를 설명하였다. 진인이 출현하여 천지공사를 한다고 하면 이곳 소사를 빼놓고는 말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진인의 출현을 말하면 공주의 계룡산을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하늘이 진인의 출현을 숨기기 위해서 그와 같이 이해하도록 한 것이다.

그래서 남사고 선생 같은 분은 기록해 놓기를 “천계룡(天鷄龍)은 불각(不覺)하고 지계룡(地鷄龍)만 찾단말가.” 라고 하였다. 또 “계룡백석(鷄龍白石) 비공주(非公州)요 평사지간(平沙之間)이 진공주(眞公州)라(계룡가)”라고 한 것은 지계룡은 공주의 계룡산을 말하고 천계룡은 영적인 계룡이 되는 소사를 말하는 것이라고 깨우쳐 주는 예언인 것이다.



소사에서 하늘나라가 이루어진다(사진: 전도관에서 세운 소사신앙촌 전경)

지금 기록한 시종간야소사지란 뜻도 “시작도 소사 끝맺음도 소사”라는 뜻인데 이 뜻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지금까지 소사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은 설명했다. 그런데 여기서는 소사에서 ‘시작과 끝’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앞에서 누누이 설명한 내용이 회복의 역사를 하시는 성인은 꼭 세 분이 나와서 한 분으로 완성이 되어야 된다고 설명을 드렸다. 여기서는 그 성인 중 한 분이 먼저 출현하시어 소사에서 시작하시고 삼상일체일출된 분이 이곳 소사에서 천지공사를 성공리에 끝맺음을 한다고 하는 예언이다. 그래

서 시작도 소사 끝맺음도 소사라고 예언을 해 놓은 것이다.

이와 같이 소사에서 하는 역사가 아니면 다 가짜가 되는 것이다.

해설: 시종간야소사지(始終艱野素砂地)에서 良方(간방)이란 동북방을 말하며 아울러 시작과 끝을 뜻한다. 성경의 알파와 오메가란 말과 같은 뜻이 된다.

周易(주역)에서는 이 간방(良方)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적어놓고 있다. 즉 艮(간)은 東北之卦(동북지괘야)니 萬物之所成終而所成始也(만물지소성종이소성시야) 일세 고로 成言呼良(성

언호간)이라 良(간)은 止也(지야)

해설: “간은 동북방의 괘이며 만물의 종말과 새 출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간방에서 하나님의 완성의 도가 이루어진다. 간은 지야라고 하여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간방인 동북방에서 그쳐 매듭짓게 된다.”

간방(良方)이란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동북방을 말하면서 아울러 시작과 끝이란 뜻이 있다. 성경의 알파와 오메가란 뜻과 같은 것이다. 만물의 종말과 새 출발의 뜻이 있다고 하였다. 그러니 간방인 한국땅에서 인류의 종말과 새 출발이 되어진다는 뜻이 된다.

종말과 새 출발이란 무엇인가? 죽음의 세상 불안정한 세상인 마귀의 세상을 종말을 짓게 하고 새로운 세상인 죽지 않는 선경의 세상을 만들어 영원한 새로운 세계를 이 간방인 한국땅에서 이루어지게 한다는 뜻이다. 더욱이 간방인 한국에서도 간방이 되는 소사 땅에서 종말과 새 출발의 결실을 맺게 하는 곳이 되는데 그와 같은 역사를 시작도 소사, 끝맺음도 소사에서 한다고 하는 예언이다. 그렇다면 소사에서 무엇을 누가 어떻게 시작을 하며, 누가 어떻게 끝맺음을 한다는 것인가.

시종간야소사지란 첫번째 주인공인 박태선 영모님이 소사에서 소사신앙

촌을 건설하시면서 천지공사의 시작의 고통을 올리고 완성자로 출현하는 구세주인 조희성님이 이곳 소사에서 승리제단을 세우시어 지상선경을 완성하여 끝맺음을 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다음의 격암유록의 예언을 보자.
 金木合運東西로서
 금목합운동서
 地上仙國創建이라.
 지상선국창건
 先出其人後降主로
 선출기인후강주
 無事彈琴千年歲라.....勝運論
 무사탄금천년세 승운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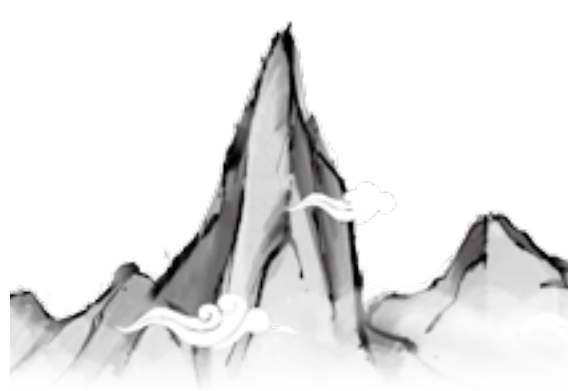
해설: “금운 되시는 조희성 주님과 목운 되시는 박태선님의 운이 합쳐져서 지상천국을 건설하신다. 먼저 오신 영모님과 후에 오신 구세주 조희성님이 무사히 거문고를 타면서 천 년이라는 세월이 이어지는구나”

이 예언이 “시종간야소사지(始終艱野素砂地)”의 참뜻을 한마디로 잘 나타내고 있다.

박태선 영모님이 소사지역에서 잃어버린 에덴동산을 회복하시는 역사를 시작하시고 완성자 구세주 조희성님이 또 이곳 소사에서 지상선국(地上仙國)을 성공리에 완성을 보시게 되는 것이다.*

격암유록 新 해설 제16회

십승(十勝)공부 삼 년이면 무문(無文)도통하리라



未運論(四) 말운론
 白馬神將出世時 백마신장 출세시
 赤火蛇龍林出運 적화사용림출운
 十處十勝非別地 십처십승비별지
 吉莫吉於弓弓村 길막길어궁궁촌
 勝者出入人人從 승자출입인인중
 有智者世思勿慮 유지자세사물려
 中入生中入何時 중입생중입하시
 午未申酉 오미신유
 先入何時辰巳午未 선입하시진사오미
 未入何時此運之後 말입하시차운지후
 未入者死 말입자사
 吉運十勝何地 길운십승하지
 南朝鮮四面如是 남조선사면여시
 如是三年工夫 여시삼년공부
 無文道通 무문도통

남조선에 계시는 전(田)자 속의 주인공이나라. 이와 같이 삼 년간 십승 공부를 하면 글 없이도 도통하리라.
 肇乙矢口氣和慈慈 조을사구기화자자
 二七龍蛇是眞人 이칠용사시진인
 三八木人十五眞主 삼팔목인십오진주
 兩人相對馬頭角 양인상대마두각
 築字之人變化君 영자지인변화군
 乘柁之人弓乙鄭 승시지인궁을정
 前路松松不遠開 전로송송불원개
 儒佛佛人是何人 유불시인시하인
 東西未世豫言書 동서말세예언서
 神人豫言世不覺 신인예언세불각

此運之論 차운지론
 十處十勝無用 십처십승무용
 十勝不現出 십승불현출
 但在弓弓乙乙間 단재궁궁을을간
 世人尋覓落盤四乳 世人尋覓落盤四乳
 世인심각낙판사유
 四口之田利用時 사구지전이용시
 田退四面十字出 전퇴사면십자출
 甚難甚難弓弓地 심난심난궁궁지

이 말운에 대해 논하자면 지리상의 십처 십승은 십승이 나오지 않으므로 아무 소용이 없느니라. 다만 궁궁을을 사이에 있느니라.
 세상 사람들이여! 낙판사유 속의 십자를 찾아 깨달아야 하나라. 입 구(口)자 네 개로 된 전(田)자를 이용할 때 전(田)자의 사면을 물리치면 십(十)자가 나오나니 그 십자를 찾기가 심히 어렵고 어려운 궁궁지이니라.

悲哉悲運何日時 비재비운하일시
 靑槐滿庭之日 청과만정지월
 白楊無芽之日 백양무야지일
 此時變運之世 차시변운지세
 柿獨出世 시독출세
 人心即天心規於十勝 인심즉천심규어십승

슬프도다! 비운(悲運)은 어느 날 어느 때인가? 푸른 회화나무가 떨어 가득한 달이요, 흰 버드나무가 씩이 없는 날이다(음력 설달 스무날). 이때는 천지개벽의 급변하는 운세이니라 오직 마귀를 이기신 삼위일체 구세주 하

나님을 모신 감(감)나무(6도 81궁 정도령) 한 분이 홀로 출세하시나니라. 인심이 천심이니 오직 십승을 찾아 도를 닦아야 하느니라.

弓弓之問生旺勝地 궁궁지간생왕승지
 非山非野仁富之間 비산비야인부지간
 山人海萬姓聚舍 인산인해만성취합
 小木多積之中 소목다적자중
 三神山人出生地 삼신산인출생지
 女古老人草魚禾耨來 여고로인초어화초래
 相望對坐地 상망대좌지
 三神帝王始出時 삼신제왕시출시
 善者多生惡者死 선자다생악자사
 可笑可歎奈何 가소가탄내하

궁궁의 사이에 영생의 기운이 왕성한 십승지가 있다. 산도 아니고 들도 아닌 인천과 부평 부천 사이에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많은 생씨가 모이는 곳이다. 감(감)나무 가지들이 많이 모인 가운데 마귀를 이기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신 분(6도81궁 정도령)이 나오시는 곳이다.

노고산과 소래산 사이의 밀실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처음으로 나오실 때 선한 자는 많이 살 것이요 악한 자는 죽을 것인데 웃을 수도 없고 탄식할 수도 없으니 어찌하면 좋을까?*

박명하 / 고서연구가 myunghpark23@naver.com

진해제단 퍼포먼스를 보고

승리절 진해제단에서 준비한 퍼포먼스는 감동 그 자체였다. 구세주께서 이긴자가 되는 과정을 묘사하였는데 참으로 좋았다. 특히 연극 전후에 석선희 승사 자매가 춘 춤은 연극의 깊은 뜻을 함축한 듯 우아하면서도 품위가 있었다.



진해제단은 행사 때 주로 합창이나 춤으로 구세주께 영광을 돌렸다. 열성적인 모습으로 행사에 임하는 진해제단 식구들의 열기는 어떤 제단과 비교해도 뜨거웠다. 그런데 이번 행사는 여느 때보다 한 차원 높아지고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었다. 평소와 동일한 구성원으로 짜인 것임에도 한 차원 높아진 퍼포먼스는 왜일까? 궁금증이 났다.

최근 전국제단에서 전도실적이 높은 곳이 진해제단이다. 구세주의 보광으로 말미암아 세인들의 부정적인 편견으로 점철된 현 시점에서 전도가 된다는 것은 무척 어렵다. 더욱이 전도하여 제단 식구가 되는 것은 하늘의 별 따는 것으로 비유될 만큼 어렵다. 게다가 세속적 야망을 포기하고 진리를 추구하기란 청년들에게는 무척 힘든 일이다.

이런 마당에 전도 열매가 달린다면 구세주께서는 아마도 평평 은혜를 부어주시겠는가. 전도한 사람과 전도 받은 사람에게 부여하는 은혜는 주변 식구들에게 퍼져 나갈 것이고, 그러면 제단 전체가 은혜의 바다가 된다.

승리제단의 진리를 자유율법이라고 표현한다. 자유율법은 나라는 존재는 지킬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 지킬 수 있는 법이다. 자유율법을 지키는 사람의 품행은 왜 그리지 아름답고 우아하다. 예법에 어긋나지 않으니 무례하지 않고, 나를 내세우지 않으니 어린아이처럼 천진난만하다. 진해제단 승리절 퍼포먼스 '이기고 이기셨도다'를 자유율법을 표현한 것이라고 말한다면 지나친 칭찬일까! 독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중천 기자

승리신문	1990.3.3 등록번호 다 - 0029
발행인 겸 편집인 김중만	
본지는 구세주(정도령, 미륵불)께서 말씀하신 사람들이 실제로 죽지않는 원리(영생학)를 누구든지 쉽게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소개하여 질병과 죽음이 없는 개벽된 세상을 만들고 진정한 평화의 세계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발행됩니다.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안곡로 205번길 37 우 422-826	광고 및 구독신청 전화 032) 343-9985 FAX 032) 349-0202
홈페이지 www.victor.or.kr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